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6>



덧없다, 참 덧없다 ②

결전을 읽을 때마다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내용이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의 인도 땅이라면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공해도 전혀 없었고 콘크리트 투성이의 살풍경한 도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들이 그토록 부러웠던 자연주의이니 웰빙이니 하는 것들이 조금도 인위적인 힘을 따지 않고 곳곳마다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나마 저녁해가 토해놓은 노을로 붉게 타오르는 삼두산의 풍광을 바라보는 경을 발견하였습니다만 부처님은 영롱하게도 이렇게 '갑탄' 하십니다. '보라, 세상은 불타고 있다.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눈이 타고 색이 탄다. 귀가 타고 소리가 탄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고 있다.'(<잡아함경>8권197경)

자연에 물려 계절의 주이를 노래하면서 그에 근근히 깨달음을 향한 남자의 마음가짐을 실어 보는 수행자들의 멋진 글귀가 세상을 감동시키

게 쉽지 못하는지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인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긴 우주의 차원으로 눈을 돌려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영원성을 통하여 자연에 견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만큼 평탄을 사랑한다거나 사군자의 기상을 배워야 한다거나 세상이 무너져도 변절하지 않는다거나 말은 그만큼 세상이 영원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까? 태산 같은 믿음을 품었다거나 혹은 들쳐림 바람처럼 결립 없는 삶을 살아가고 노래 하였으니까요. 이 얼마나 짧고 얇은 식견의 소치요, 얼마나 험란한 세 지 허풍의 장난입니까?

"나만 죽지 않는 자가 없으며, 천지에는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천지가 영원한 것이라 여기지만 부처는 천지가 허공과도 같은 줄 알고 있다. 천지도 천지(成敗)가 있거늘 몸을 버리지 않는 자는 또 어디에 있겠는가."(<불반나원경>)

부처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주의 이런 긴 주기를 한 눈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매우 크고 넓으나 대문은 꼭 하나뿐이

생성-소멸 반복하는 우주 원리 깨툰은 부처님

저녁 노을 불타는 멋진 풍광 앞에서도 탄식

는 요즘의 서정으로 볼 때 부처님은 멋도 없고 아름다움도 모르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전해오고 있는 자연재해 소식들은 이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용렬하였는지를 단번에 일깨워줍니다.

<기세경>이라는 좀 길이가 긴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되풀이 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머물, 세계가 머문 뒤에 파괴됨, 세계가 파괴된 뒤에 다시 생김, 세계가 생긴 뒤에 머물이다. 이렇게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된다."

이런 되풀이되는 일련의 과정은, 이루어지고(成), 그 상태로 잠시 머물다가(住), 파괴되고(壞), 그렇게 파괴된 뒤에 텅 비고 만다는(空) 성주괴공의 네 가지 모습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노병사라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년도

고, 그 안에 1백 명, 2백 명 내지 5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낡아서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를보는 기술이 저 위태롭게 생겼으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나 전체가 한창 타오르고 있는' 집 일뿐이었습니다(<법화경 비유품>).

자전과 공전을 쉬지 않는 지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구'라고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인간을 제외하고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와 에너지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라지고 변해가며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생들 역시 잠시도 쉬지 않고 태어나서 늙어가고 무너지고 있거늘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제 마음에 든다고 악착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이 얼마나 거여웠을까요? 삼계가 불타오르는 집이라는 탄식을 토해낸 것을 보면 '이 중생들은 제 몸과 지구에 얼마나 더 무상한 일들이 펼쳐져야 그런 미련과 무지를 떨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안타까움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 이미형(통국역경원 역경위원)



대일 스님은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늘 '이뻛고'를 하려고 당부했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늘 행주좌와 어묵동정하면 그곳이 바로 법당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또 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안좋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싸우라고 강조했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뻛고' 하라



대일 스님

(마천 영원사 주지)

대일(大日)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한지 30분가량 지났을 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이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네. 당신 뜻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달려 취재에 응했다고 노발대발 하셨다고 하던데. 미안하게 됐어."

대일 스님을 만나보려고 일러준 스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아차, 싶었다.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린다 생각했는데... '스님다운 스님'이라는 말로 대일 스님을 추천해준 스님과 대일 스님 상좌스님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듯 했다. 하지만 내친걸음이었다. 승용차는 그대로 마천을 향해 달렸다. 점심도 거른 채 영원사 근처에 도착했지만 또 다

른 난관이 우리를 기다렸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쌓여 걸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잠시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걸지 않아서 숨이 가빴다. 조금 지나니 등 뒤로 땀도 배어 나왔다. 하지만 눈으로 뒤덮인 산줄기에서 내려오는 알싸한 바람이 갈는 맛을 새롭게 했다.

영원사에 도착해 방당을 참배하고 나오는 길에 뒷짐을 지고 지나가는 한 노스님을 만났다. 대일 스님이었다. 반배 합장을 하며 인사를 드

나와 남 구분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생겨

렸다. "연락 못 받았나. 나는 신문에 나올만한 스님도 아니고... 쟁 구경이나 하다가 가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스님의 열연한 눈썹이 더 이상 말을 붙일 엄두가 안 났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법당 앞에서 주눅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는 기자가 안스러웠던지 얼마 후 스님이 '차나 한 잔 하고 가소' 하고 권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무식해서 법문해 줄 정도로 배운 것도 없다. 요새 난다 긴다 하는 스님도 많은데 이런 데는

뭘 하러 왔어. 여기 도량이야 좋지만..." "도량이야 좋지"라는 스님의 말에 영원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대일 스님은 출가한 뒤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다 영원사 인근 상무주암에 10년 정도 있었다. 이후 30년 남게 영원사에서만 주석하면서 영원사를 복원했다.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953번지에 위치한 영원사. 전통사찰 제16호인 영원사(靈源寺)는 통일신라시대 고승 영원 대사가 건립했다고 전해져 영원사로 불린다. 지리산 중턱 해발 92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천 해인사 말사다.

영원사는 한때 내지리(內智異)에서는 제일 큰 사찰로, 너와로 된 선방 9채를 비롯해 100칸이 넘는 방이 있었다. 고승들이 스처각 방명록이라 할 수 있는 조실인록(祖室案錄)을 보면 부용영관, 서산, 창매, 사명, 지안, 설파상언, 포공 스님 등 당대의 쟁쟁한 고승 109명이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는 기록도 있다. 여운 사건과 한국전쟁으로 건물 전체가 소실됐다

대일 스님이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영원사 이야기가 나오자 스님의 얼굴이 약간 풀리기 시작했다. 영원사를 복원한 이유를 여쭙었다. "꼭 불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빈터로 있는 거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됐지. 불사하는 제집도 아니고. 그럴만한 자격도 없고."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질문을 둘러봤다. 산이 깊을 뿐 아니라 혼자 계셔서 적직하지 않느냐고.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지 큰 불편은 없다. 편이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땅, 인도 그 광활한 대륙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순례를 떠나니...



롬비니동산,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와 세계가 불가사의 타지마음을 돌아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8박 9일이며 출발은 2월 25일입니다.

인천 수미정사 주지 종언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기념법회도 병행하게 될 성지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총 참가금 : 2,140,000원, 비지비용 100,000원 포함 (8박 9일) ● 비자 : 사전 3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2월 15일까지
- 출발 : 2월 25일(금)
- 문의전화 : 불교방송 705-5302-3

▶ 일정표

일 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흥공 델리 (금)	KE603	07:00 11:50 17:30 21:00	인천공항 집결 인천출발 흥공 도착 후 중식 흥공출발 델리 도착 후 호텔 투숙	조 중 한 식
제02일	델리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인도문, 대통령궁, 국립박물관 등 쿠트브미니르 관광	조 중 한 식
제03일	델리	아간열차	19:45	아간 열차편으로 바라나시 이동	식 호텔식

일 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3일	기원정사	전용차량	06:00 전일	과다 도착 후 스리바스타의 이동 후 불교경전 강연, 사리자리, 왕굴리마의 동굴순례 후 국경통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로 이동	조 중 한 식
제04일	롬비니 쿠시나가라 바라나시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 후 쿠시나-가르호 이동 부처님 열 명, 대왕 처우받았지 순례 후 바라나시로 이동 바라나시 도착 후 호텔 투숙	조 중 한 식
제05일	바라나시 사르나트 부다가야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 후 경치스강 일출, 상수목욕관람, 가트순례 후 부처님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순례 후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로 이동	조 중 한 식
제06일	부다가야 라지가트 나이다 피르나	전용차량	전일	호텔조식 후 미아라-내담(금강모래, 보리) 순례, 내담, 수제마을 순례 후 부다가야 출발 라지가트 도착 후 밤바사라할 갈라티, 육왕정사, 영취산 순례 나이다 이동 후 불교대학의 순례 법학관의 성지 퍼트니르 이동	조 중 한 식
제07일	아그라 델리	전용차량	전일	아그라 도착 후 호텔 조식 세계대불사지인 타인 타미타할 및 아그라성 관광 후 델리리 이동 델리도착 후 중식 및 호텔투숙	조 중 한 식
제08일	델리 흥공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델리 출발 흥공 도착	조 중 한 식
제09일	흥공 인천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흥공 출발 인천행	조 중 한 식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일본 가고시마 성지순례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숨쉬는 곳 일본! 불교방송에서는 2월 27일 일요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성지순례를 떠나니...



동양의 나폴리,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백제 왕자를 제신으로 모신 미카토 신사, 미야자키에 조성된 백제마을 또 사보텐 히브리온과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등을 관광하며, 저녁엔 온천욕으로 번외의 속진을 맡김히 돌아내 보십시오.

이번 일본성지순례의 지도법사는 불광동성불암 주지 목산스님이 함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705국에 5302-3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요 금 : 890,000원
- 출발 : 2월 27일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신규 여행 서류	여행 연장 서류
1.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여권 사진 2장 4. 여권 인지 대금 45,000원	1. 기존 여권 2. 여권 사진 1장 -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지 대금 4,500원 5. 단,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함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정표

일 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흥공 델리 (금)	KE785 전용버스	07:00 10:00 11:30 오후	공항 집합 및 인원 확인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가고시마 공항 도착	중 한 식
제02일	미야자키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미야자키 신궁, 에비노 고원 관광 후 미야자키 이동(간소요), 미야자키 신궁, 평화대원 관광 후 호텔 이동하여 호텔투숙	조 중 한 식
제03일	미야자키 아오시마 시쿠리지리 가고시마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아오시마 이동 아오시마 도깨비 발레관 관광 및 아오시마 신사 우도신궁 참배, 사보텐 히브리온 관광 후 시쿠리지리 이동 비타리 센터,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관광 호텔투숙 후 온천욕	조 중 한 식
제04일	가고시마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아오시마 이동 아오시마 도깨비 발레관 관광 및 아오시마 신사 우도신궁 참배, 사보텐 히브리온 관광 후 시쿠리지리 이동 비타리 센터,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관광 호텔투숙 후 온천욕	조 중 한 식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항공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 그런데 요새 큰 절은 기업 아닌가. 관광상품화나 하고.”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다. 이어 왜 평생 영원사에서 사는지 여쭈었다.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렇지. 요새 중들 죽고 나면 남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양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다 신도들 시웃분인데 종단으로 회향해야지. 또 대한민국 돈이 다 자기 것이면 뭐할 거야. 돈벌려고 머리 깎은 것도 아니잖아. 부처님 얼굴에 똥칠하는 짓이지.”
 거칠 것이 없었다. 집권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스님은 갑자기 기독교 칭찬도 했다.

**원 세우는 일 제일 중요
 청정함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

“기독교는 봉사를 잘하네. 옛날에는 하늘에 하나님이었다고 하더니 요새는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맞는 거야. 옛날에 성철 스님도 불공은 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 바깥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
 가만히 들어보니 애정 어린 불교 비판이었다.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었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커서 스님이 되더라도 수행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른 스승을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줬다.



대일 스님이 직접 법당 앞을 쓸고 있다.

“조선시대 여기 지리산 벽송사에 법계정심 선사라고 있었지. 여기서 감자농사나 하고 도토리를 주워 시장에 내다팔며 유유자적하게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지. 벽송이라고 하더라도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 스님이 법계정심 선사에게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자 스님은 공부할 사람이자 싶어 받아 들였지.

그 후 한 3년이 흘렀어. 하루는 공부하러 온 스님이 3년이나 스님 밑에서 일만 했지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싶어 보파리를 쫓던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법계정심 선사자 떠나던 스님을 향해 주먹을 쥔 손을 치켜들며 이렇게 외쳤지. ‘이 골 같은 놀이, 껏구멍이 뚫어지도록 가느라 건만 모르고 그냥 가느냐. 법 법아가라.’ 이를 본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거야. 그 스님이 바로 지암 스님이라.”

대일 스님은 요새 사람들은 참성이 부족하다며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다.
 “옛날에 배장사를 하던 한 총각이 고개를 넘을 때였다. 그 때 누더기를 입고 쉬고 있는 스님을 봤지. 안타까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배 한필을 스님에게 공양했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총각은 저 스님 정도면 공부를 배울 수 있겠다 싶어 무작정 따라갔지. 그렇게 처소에 도착하자 무조건 일만 시키는 거야. 일을 하다가 총각이 스님에게 언제 공부를 가르쳐 주냐고 물으니 스님이 술을 끓여보라고 하는 거야. 술을 끓고 스님에게 여쭙니 잘못 걸었다며 다시 하라고 해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런데 또 잘못 걸었다고 꾸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홉 번을 하자 스님이 ‘이제는 됐다’고 말씀했지. 그 총각이 나중에 구정(九鼎) 스님이 됐지.”

대일 스님은 무엇보다 진실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진실한 연후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할 줄도 모르고 견성도 못했어. 그저 하는 척 할 뿐이지.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법문할 수도 없어.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법문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 포교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다만 공부는 진심하게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되는 법이지.”
 스님은 또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와 남을 구분하다 보니 남보다 많이 가지려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이다.
 「**원각경**에 ‘무변허공(無邊虛空) 각소현발(魔所顯發)’이라는 구절이 나오지. 이를 두고 무변허공이 깨달음에서 나왔다는 의견과 무변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는 의견이 있어. 하지만 이를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야 돼. 즉 깨달음 없이 무변허공과 같은 청정한 경계를 얻을 수 없지만 청



법당 앞에 선 대일 스님. 오늘의 영원사는 대일 스님이 세웠기에 가능했다.

정함 없이 깨달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이야.”
 이와 더불어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아 할지라도 힘이 아닌 덕(德)이나 선(善)으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의 종지부를 ‘이렇고’로 찍었다.
 “자네들은 서울에서 왔지만 온 것이 있다. 고깃덩어리만 여기에 왔지. 몸은 여기에 있어도 생각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이렇고’를 해봐. 그러다 보면 확실히대는 아니더라도 삶을 털고달뜨게 살 수는 있지.”

**길이 있어 가는게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생기는 것**

스님은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늘 ‘이렇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늘 행주좌와(行住座臥) 어묵동정(語默動靜)하면 그곳이 바로 법당이라는 것이다.
 “육조 스님의 가르침처럼 밝다 하나 어떤 빛이 있어서 밝은 것이 아니라 본연의 지혜 그것이 밝은 것이야. 본연의 지혜는 모양과 색을 여의었지만 어떠한 모양과 색도 분별이 가능해. 또 능히 어떠한 모양과 색도 분별하지만 모양과 색을 여인 것이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안 좋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싸워야 해. 그것도 어려우면 매일 108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을 세우는 것이야. 원을 세운 다음 좋은 스승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면 다음 생이라든 깨달을 수 있어. 길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생기는 것이야. 불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

글=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71년부터 영원사 주석... 평생 깊은 산속에서 수행

대일 스님은 대일 스님은 1931년 경주 건원읍에서 출생해 47년 사미계, 5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71년부터 마천 영원사 한 곳에만 주석하고 있다. 은사는 인공 스님으로 前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과 사형사제지간이다.

대일 스님을 처음 본 순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엄한 할아버지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얼굴에 차츰 열은 웃음이 묻어나오자 어떻게 하면 저런 천진난만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아 보였다. 스님에게 슬쩍 여쭈었다. 사형인 해암 스님과 같이 수행한 적이 있는 법전 스님은 두분다 종정의 위치까지 올랐는데 부러운 적은 없었는지. 스님은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다. 대일 스님은 대강백이나 뛰어난 선사는 아닐지 모른다. 그보다 지독한 원적주의자 같아 보였다. 특히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평생토록 깊은 산속에서 수행의 한길로 매진하게 한 동력이었다는 지도 모른다.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는 요즘, 고집스러운 원적주의자가 더 마음을 깊이 다가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현 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서명 스님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외지고 외지고 후미지고 후미진 그곳, 거기 청량산이 있다. 청량산의 외청량(外淸涼), 응진전(應眞殿)에 그는 앉아 있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스러져 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노을은, 붉은 노을은 외청량산 암벽에 부딪쳐 그 황홀한 무늬를 수놓곤 했다. 노을 비친 저녁녘, 암벽을 무연히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느 고요한 여름날 저녁 무렵에,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는 초가를 저녁에, 잔설(殘雪)이 남아있는 봄날의 저녁에, 아니 평평 쏟아져 내려 온통 시아가 아득한 한겨울 저녁에,

로 우울했다. 어쩐지 우울해서 견디기 어려웠다. 형언할 수 없는 모종(某種)의 우울함이, 서글픔이나의 전신을 짓누르곤 했다. 심년쯤 지난 오늘도 외청량산을 올라가는 산비탈을 올라다 볼라치면 그의 흔적이 거기 있는 듯하다. 그의, 휘적거리며 올라가는 먹빛 저고리가 거기 그대로 걸쳐져 있는 듯하다. 서명 스님,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는 지금 충청남도 부여 부근의 오목사란 조그만 절에 주지를 맡아 머물고 있다. 듣건대 공양주 보살도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하며 살고 있다고, 그저 그대로 혼자 지낸다고 전해 들었다. 스님은 사진작가다. 사진 찍는데 취미를 붙여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사진작가다. 그는 한 때 내게도 사진 찍기를 권유했고, 그러면만큼 정팔 사진에 미쳐 있었다. “지현 스님, 과감하게 ‘트리밍’ 해요. 그래야 사진이 사진답게 나오요. 어쨌든 간에 사진은 ‘트리밍’이 중요해요...” 그는 이러면서 사진의 이리저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묵묵히 사진통해 禪 탐구
 국전 등 각종 공모서 상받아**

좀처럼 말이 없는 스님이지만, 사진 얘기만 나오면 그야말로 그칠 줄 모르는 ‘떠버리’였다. ‘트리밍’이 무엇인가. ‘트리밍’은 잘라낸다는 뜻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진은 아래나 윗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완벽한 미학을 연출해 낸다는 뜻이다. ‘트리밍’, 삶에 있어서도 트리밍이 될까? 우리네 피곤한 삶의 한가운데, 우리네 긴긴 여로(旅路)에 있어서 과연 트리밍이 유용하게 통할 수 있을까? 과연 자리잡을 수 있을까? 서명 스님, 그는 트리밍과 트리밍을 통하여 저 먼 우주의 블랙을 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했을까? 또 다른 태양계의, 또 다른 생명체들과 만나고자 했을까?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고 또 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절망의 한때, 고독의 한때를 벗어난 진정한 자기의 중심(中心)을 찾기 위해 예스는 그의 면모가 동글하게 가슴을 적시는 새벽에, 나는 지금 그를 생각한다. 오랜 탐구를 거듭하여, 그는 ‘국전’ 및 ‘대한민국 사진전’ 등에 여러번 입선 특선을 거듭하여 추천작가와 초대작가가 되었다고 들었다. 사진을 통한 그의 탐구는 또 다른 선적(禪的) 위앙스를 우리에게 곁에 다가가고 있다. 말없는 그의 표정이, 저 마나면 우주의 블랙을 쪽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의 용수음이 늘 황홀하게 길 바란다. 황홀해서 늘 웃음짓길 바란다. ■ 봉화 청량사 주지

그는 장승처럼 그렇게 묵묵히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면 한여름 내내 쏟아져 내리는 긴긴 여름날의 장마철이면, 만산홍엽 낙엽지는 가을철이면, 폭설이 내린 한겨울이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며 있었을 것인가? 그는 일어나 부지런히 청소를 했다. 법당을 쓸고 닦고 요사의 방들을 쓸고 닦고, 분주히 움직이며 하루를 건넜다. 그리하여 만사를 잊었다. 온전전, 법당에 모셔져 있는 심육 나한님을 향하여 무릎꿇고 경배하며 만사를 잊고자 했다. 잊어버림으로 해서 그의 조그만 정적(靜寂)을 누리고자 했다. 그것이 그때의 서명(西明) 스님 삶의 한 방식이었다. 모른다, 그냥 내대로의 추측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명 스님은 삼사년을 그렇게 보낸 것만은 확실하다. 그는 좀처럼 아랫집 청량사로 내려오지 않았다. 김치 떨어지고 간장 뿜장 떨어지면 훌쩍 내려와 점심 공양을 한 뒤 등산용 배낭에 이것저것을 주워담아 올라본 뒤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버리곤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외청량으로 올라가 버리곤 했다. 가파른 산비탈 길을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그의 뒷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는 한때 람으

그림 · 문명성

e-편한발 orthotics 특징

- e-편한발 오스틱스 제품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EVA몰질을 사용 하였으며 부드러우며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착용시 편안하다.
- e-편한발 오스틱스는 체중과 하중을 분산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 e-편한발 오스틱스는 이상적인 족궁(Arch)을 이루게 한다. (내측 족궁, 외측 족궁, 철골궁, 횡궁)
- 착용하고 걸기만 하여도 편안함과 근육격계를 교정시켜주며 지속적인 발바닥 맞사지로 굳은 살, 디논, 각질 제거
- 은나노 공법을 도입하여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도움부위

- **두통** :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두통 해소에 도움
- **목** : 목디스크, 목의 통증 해소에 도움
- **어깨** : 어깨결림, 사십견, 오십견
- **허리**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굽은 등 개선에 도움
- **골반** : 틀어진 골반 교정에 도움
- **무릎** : 무릎관절 통증, O형다리, X형다리 교정에 도움
- **발** : 무지외반증, 평발, 오족 개선에 도움

대리점모집

본사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2동 396-27
 TEL. 042)633-1808
 FAX. 042)636-0506

건강을 생각하는 가업
e-편한발
 http://www.e-foot.co.kr

사찰 연등 및 전선(별뿔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시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안전지용 초.망성, 탈몰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등(정품)

- ▶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